

## □ 지정 발표

### ○ 서울시 공동체 공간 현황 및 발전 방안 제안(앤스페이스)

- 총 20개 자치구, 84명의 조사원이 5개월간 참여하여 1~4단계 누적조사건수 2,288건, 정보 등록된 공간 총 810개로 산정됨
- 공공형 공동체 공간은 '도서관', 민간형은 '대관 공간'의 형태로 공유공간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, '동아리', '커뮤니티', '마을'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띤 공간은 전체의 40%를 차지함
- 공동체 공간 시설에는 '회의실'과 '세미나실' 등 모임과 강연을 위한 공간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고, 이용자는 '주민' 기반 여성-어린이-청소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다수의 공동체공간이 소규모/협소 예산의 조건에서 운영된다고 보이고, 공간 구축과 조성 예산에 있어 공공 자원과 위탁/보조금 비율이 높음. 따라서 자체적인 성장 자금 마련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음
- 공동체공간 운영 중 가장 중요한 인력 현황에 있어 다수의 공동체 공간이 적은 인원으로 운영 중임.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지원 요청이 많고, 단순히 인건비 지원을 넘어 공간의 전문 인력 및 상주인력 성장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음
- 이를 종합해서 정책을 제안해보면
  - ▶ 서울시와 자치구가 '협력 지원'하는 공동체공간의 요건을 정리하고 단계별 지원 전략과 목표를 설정
  - ▶ 지속가능한 공동체공간을 위한 공간·인적·정보 자원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지원책이 필요
  - ▶ 공동체공간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와 사람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

### ○ 공동체공간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략1(성동구)

- 방문조사·주민의 입장·공감을 원칙으로 성동구 공동체공간을 조사한 결과 총 78개소, 그 중 50개소는 4단계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남
- 이를 분석한 결과는
  - ▶ 공공조성 공간 비율이 높음
  - ▶ 조성단계부터 운영목적과 운영주체 특성을 반영
  - ▶ 민간주도 공동체공간 조성 필요
  - ▶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
  - ▶ 인건비 혹은 인력지원
  - ▶ 공동체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
- 이를 종합해서 성동구 센터는 공모사업지원, 마을아카데미 운영, 상담 및 컨설팅 제공, 네트워크를 통한 마을자치강화사업, 주민기획단을 통한 성동마을행사 추진, 네트워크 구축, 마을공감사업 등을 추진 중임

### ○ 공동체공간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략2(성북구)

- 성북구 마을공동체 공간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과로는 마을로 생활 영역 공간 확대, 다양한 주민 욕구에 반응, 주민들 간 교류 증대, 마을활동·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, 마을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등이 있음
- 그러나 가시적인 혜택·많은 기회·다양성 제공의 어려움, 네트워크 형성 및 네트워크 간 연계성 부족, 마을공동체 활동·마을의제 발굴 활동으로 연결 부족, 플랫폼으로의 기능 수행 미비 등 한계점이 나타남
- 그래서 성동구는 순수 민간 운영 중심의 공동체 공간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. 개방된 공간으로 주민들과 직접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접근성이 좋으며 공간 대표의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공간을 플랫폼으로 구축
- 플랫폼 공간에서 참여가 확대되고 의제를 발굴하며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
- 모임·동아리를 구성하여 연결하고, 마을의제를 함께 발굴하며 교육·세미나

등 간접지원 방안을 모색하고, 수익사업자원과 연계하여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

#### ○ 모두의 공간 서울시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계획(지역과)

-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림. 따라서 지금부터 내실을 다지는 협동과 도전이 필요
- 지금까지 마을활력소 사업을 추진해본 결과 공간확보 어려움, 주민자발성 저해, 낮은 인지도, 자립성 확보 어려움, 중간지원조직 역할 부족 등의 한계가 나타남
- 따라서 지금부터는 마을공동체 공간을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형성, “모두의 공간 마을활력소”로 성장 유도
- 주민은 자발성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공간 연대모임을 형성하고, 행정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공간을 지원하며 민·관이 함께 당사자성을 가지고 공론장 조성, 공간 발굴, 마을 자산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추진
- “모두의 공간 마을활력소”는 시단위 마을공동체 공간 연대모임의 초기 주민 주체자로 활동, 마을공동체 경험이 많고 역량이 높은 곳이 대상지가 되며 공동체 공간이 마을활력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역할을 가져야 함
- 이를 위해 시는 마을활력소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, 교육 및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며 공간조성(매입, 신축, 리모델링) 및 인력(뉴딜일자리)을 지원할 계획

#### □ 토론

##### ○ 주민 의견

- 뉴딜일자리는 한시적인 지원 방법일 뿐, 결국 다른 곳에 취업을 준비해야

함

- 마을활력소 사업의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로움. 또한 소규모 공동체에서 접근하기 어려워 보임
- 공간 지원에 있어서 간편한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것도 필요
- 신규 공간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마을활력소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
- 소규모 공동체 공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
- 시설운영비, 자산취득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고려할 필요
- 도심권의 높은 임차료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?
- 캠퍼스타운, 청년공간 등과 연계. 공간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
-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 및 사용자의 범위를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
- 공간에서 공론장을 운영, 주민들이 의견을 발산·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.
- 주민 자산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
- 공간에서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
- 공동체 공간 지도가 공동체의 활동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

##### ○ 토론자 의견

- 공동체 공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행정력 소모나 행정종속을 방지하고 공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
- 행정 입장에서 공동체 공간 인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. 또한 순수 민간 운영보다는 민관 협력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

- 공동체 공간 지원은 각 부서에서 제각기 운영되므로 필요한 예산을 찾아보고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됨
- 인력 지원 방안으로 뉴딜일자리가 나왔는데, 실제 현장에서는 본인들의 공간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외부 인력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. 기존 운영진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마을활력소·공동체 공간 모두 원하는 곳은 공론장을 열 수 있도록 하고, 지원방안이나 공간의 역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. 특히 이곳에서 숙의예산을 논의해보는 것도 좋을 듯함